

##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Safety Environm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정혜명, 송주승\*

김포대학교(보건행정과), 김포대학교(유아교육과)\*

Choung Hye-myung, Song Joo-seung\*

Kimpo College, Kimpo College\*

#### 요약

하루 중 반 이상을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육의 대표적인 두 종류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외 안전과 관련된 환경을 비교한 결과 실내 및 실외의 안전 환경이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의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의 발달의 특성을 보면 주변 환경이나 사물에 호기심이 대단히 많으며 충동적이다. 그에 비해 신체조건은 미약하여 발달은 미숙하고 균형도 잡혀있지 않으며 운동기능도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능력 또한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눈 깜박 할 사이에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놀이시설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sup>.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기관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여 실외놀이 환경에서 추락이나 충돌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 시설의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안전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어린이 집에 관한 강제 규정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을 실내 및 실외로 나누어 조사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며 영유아의 안전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및 실외의 안전 환경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유치원 24군데, 어린이집 20군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과 재학생인 예비교사들이 실습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환경을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한 후 각각의 조사표에 실습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에 관한 척도는 실내 안전과 실외 안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Bassete, M의 안전점검 목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여건에 보편적으로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한 기존의 척도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sup>4,5)</sup>.

연역구분	하위영역	문항 수
실내 안전 (92문항)	실내 일반	28
	시설물 및 놀이감	35
	복도와 계단	8
	목욕실 및 화장실	8
	조리실 및 식당	13
실외 안전 (26문항)	실외 일반	6
	놀이터 바닥	4
	놀이터 공간	5
	놀이터 시설	11
합 계		118

▶▶ 그림 1. 안전 환경 척도의 영역별 항목 구성

## III. 연구결과

### 1. 실내 시설의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 즉 영유아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 내부 시설물, 놀이감, 복도와 계단,

목욕실 및 화장실, 조리실과 식당 등을 살펴보았다.

### 1.1 실내 일반

실내 일반 환경 중에서 두 기관 모두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조사된 부분은 담배로부터 안전이고, 영아를 혼자 두지는 않는 것이고 조사되었다. 유해한 물품을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문이 잠긴 상태로 잘 보관하는 곳이 모든 유치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어린이 집에서는 그에 미치지 않아 조금 낮게 나타났다. 영아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의 문이 성인이나 유아의 바깥 쪽에서 쉽게 열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두 기관 모두에서 안전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고 문 모서리에 영아의 손가락 보호를 위한 고무소재의 틈막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분과 콘센트에 안전마개가 씌워져 있는지를 조사한 부분에서는 두 기관 모두에서 안전도가 낮게 나타났다.

### 1.2 시설물 및 놀잇감

두 기관 모두에서 시설물 및 놀잇감 부분의 안전성이 낮게 나타난 부분은 비닐이나 풍선류의 놀잇감들은 유치원보다 어린이 집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놀잇감의 크기가 작아 영아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모두에서 안전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 집에서 안전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은 영아에게 작은 조각이나 동그란 모양의 모형 음식물 놀잇감을 사용하고 있어서 삼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므로 안전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1.3 복도와 계단

두 기관 모두에서 계단 양쪽 모두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계단에 있는 문이 접이식이 아니고 영아가 가까이 있을 때 잠겨져 있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서 안전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 1.4 목욕실 및 화장실

두 기관 모두에서 안전도가 많이 낮게 나타난 부분은 영아가 간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도록 화장실 문고리의 안전도가 낮게 조사되었고 목욕실의 전기 콘센트에 안전마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안전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 1.5 조리실 및 식당

이번 조사에서 조리실 및 식당의 안전도는 두 기관 모두에서 안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이다. 조리대 가스대 온수 등의 청결부분, 위험한 식기들과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실외 시설의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외 환경 중에서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 실외놀이터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조사 하였다.

### 1.1 실외 일반 및 놀이터

두 기관 모두에서 실외 놀이터에 관한 안전도는 실내의 안전도보다 대부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놀이터의 놀이 시설들이 볼트, 너트, 나사 등이 테이프를 싸여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속 시설물 또한 녹이 슬거나 벗겨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이터의 흙은 잘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외 놀이터의 울타리는 영아가 넘겨볼 수 있는 높이어거나 울타리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놀이 시설과 외부와 잘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그네는 다른 놀이 영역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아 안전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틀의 안전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내려오는 곳의 방지턱을 갖추고 있는지의 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질이 철재인 경우는 햇볕에 뜨거워지지 않도록 관리되어 있지 않아서 더운 여름에는 화상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나무 놀잇감은 왁스칠이 매우 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요약 및 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환경을 살펴보고 두 기관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인 실내의 안전 환경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설물 및 놀잇감 부분에서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복도 및 계단, 목욕실 및 화장실, 조리실 및 식당 등에서는 두 기관이 비슷한 정도로 조사 되었다. 실외 놀이터의 안전 환경부분에서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의 놀이 시설이 더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외 놀이 공간을 별도로 갖춘 곳이 어린이 집보다는 유치원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어린이집도 안전에 관한 강제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42군데의 기관을 조사하였으나 좀 더 기관수를 늘려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 문헌 ■

- [1] 이기숙, 장영희, 배소연, 박희숙,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양서원, 경기도, 2004.
- [2]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 2006.
- [3] Bassete, M, Textbook of Pediatric Life Support, 1995.
- [4] 지성애, 김영옥, 홍혜경, 농어촌 보육시설의 안전 점검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5, pp.133-170, 1998.